

루쉰 「축복(祝福)」 재독 —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서의 ‘나’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연수*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3. 현대지식인으로서의 ‘나’의 외면 |
| 2. 루전의 전통적 가치체계와
그로 인한 억압 | 1) 질문에 대한 응답의 거절 |
| 1) 전통 억압 기제로서의 유교 | 2) 선택으로서의 ‘계몽’과의 단절 |
| 2) 위로 기능을 잃은 민간신앙 | 4. 나오며 |

【초록】

1924년 발표된 루쉰의 소설 「축복(祝福)」에는 유교와 민간신앙이라는 두 가지 전통적 가치체계가 등장한다. 그리고 현대지식인을 대표하는 ‘나’는 이 두 전통적 가치에 대해 관찰자적 입장에서 비관적인 시선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유교와 민간신앙 모두로부터 배제되어 절망한 상린택이 ‘나’에게 영혼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 묻는 순간부터 ‘나’는 「축복」의 관찰자가 아니라 주인공이다. 상린택의 질문은 도와달라는 신호와 마찬가지로 ‘나’는 철저하게 외면한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존재에 대해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축복’ 제의 속에서 천지신명의 존재를 느끼며 위안을 얻는다. ‘나’는 상린택의 도움 요청을 외면함으로써 상린택의 비극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 중 한 사람이 된다.

【키워드】 루쉰, 축복, 상린택, 민간신앙, 유교

* 北京大學 中國語言文學系 박사과정 (kys23121@icloud.com)

1. 들어가며

루쉰(魯迅, 1881-1936)의 대표작 중 하나인 소설 「축복(祝福)」(1924)은 새해를 보내기 위해 고향인 루진(魯鎮)에 돌아온 ‘나’가 루진의 중요한 제의인 ‘축복’ 직전에 죽은 상린댁(祥林嫂)의 삶을 회상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는 중국인들에게 삶의 기반이 되었던 두 가지 전통적 가치 체계가 등장한다. 하나는 루쓰나리(魯四老爺)로 대표되는 유교(儒敎) 혹은 봉건예교(封建禮敎)이고, 또 하나는 류마(柳媽)로 대표되는 민간신앙이다¹⁾. 그리고 현대지식인을 대표하는 소설 속 ‘나’는 이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서술한다. 구체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나’는 새해를 지내기 위해 고향인 루진(魯鎮)에 돌아온다.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루진에는 ‘나’의 직계가족은 이미 없으므로 본가의 친척인 넷째 숙부(四叔, 魯四老爺)의 집에 머물게 된다. 루진에는 ‘나’외에 상린댁(祥林嫂)이라는 외부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영혼과 지옥의 유무에 대해 묻는다. ‘나’는 대답을 얼버무린 채 자리를 피하고, 오래지 않아 상린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 뒤 ‘나’는 상린댁이 루진에 들어왔을 때부터의 기억을 떠올린다. 남편이 죽고 난 뒤 웨이 노파(衛老婆子)를 통해 넷째 숙부의 집에 일꾼으로 들어온 상린댁은 말수가 적고 부지런해서 숙모의 호감을 샀다. 그러나 그의 전 시어머니, 즉 죽은 남편의 어머니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재혼한 뒤 잘 사는가 싶더니, 남편과 아이를 잃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루진에 돌아온다. 늑대에게 잡아먹힌 아이의 시체를 직접 목격한 상린댁의 비극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슬픔에 공감하며 들어주지만, 나중에는 귀찮아하며 심지어는 조롱하기까지 한다.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한 상린댁은 결국 거지가 되어 객사한다.

상린댁이 맞이한 비극의 원인에 대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사람을 먹는(吃人)’ ‘유교(儒敎)’와 민간신앙을 꼽는 것이다.²⁾ 그러나 「축복」의 루쓰나리가 유교를 상징하는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³⁾ 또한 초기 논문인 「파악성론(破惡聲論)」과 이후 「사회(社戲)」, 「무상(無常)」, 「여조(女吊)」에서 보이는 것처럼, 루쉰은

1) ‘민간신앙’의 정의는 명확하게 내려져있지 않다. 중국의 민속학자 우병안(烏丙安)은 자신의 저서에서 ‘민간신앙’의 내용을 숭배 대상에 따라 (1) 자연물, 자연현상(천지, 천체현상, 동식물 등), (2) 환상물(신령, 귀신, 정령 등), (3)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인간(신선, 무당 등), (4) 초자연적인 힘(영혼, 영물 등)으로 범주화했다. 烏丙安, 『中國民間信仰』, 長春出版社, 2014 참조. 본 논문에서는 우병안이 분류한 대상에 대한 믿음을 ‘민간신앙’으로 정의한다.

2) 高遠東, 「祝福儒道釋“吃人”的寓言」, 『魯迅研究月刊』, 第2期, 北京魯迅博物館, 1989. 李德堯, 「論“祝福”對儒敎的批判」, 『漢江師範學院學報』, 漢江師範學院, 1985. 등 참조.

3) 宋劍華, 「反“庸俗”而非反“禮敎”小說“祝福”的再解讀」, 『魯迅研究月刊』, 第11期, 北京魯迅博物館, 2013 참조.

민간신앙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해석에서는 현대 지식인인 ‘나’의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루전이 고향이긴 하지만 지금은 먼 친척 외에는 연고가 없는 외지인으로, 거리를 두고 루전의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화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는 상린택의 비극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억 속에 있던 내용을 회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곧, 상린택이 ‘나’에게 사후의 일에 대해 묻는 순간부터 방관자에서 벗어나 사건의 중심에 들어오지만, 스스로 거부하고 방관자를 자처한다. 그러나 상린택이 죽은 뒤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의 심경 변화를 자세하게 서술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소극적인 관찰자로서의 화자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으로서의 ‘나’에게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해석에서 주목했던, 루전을 구성하는 전통적 가치체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가치체계의 구조적인 억압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가치체계가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 오면서 억압과 동시에 존재했던 관용을 잃어버린 것에 주목한다. 이어서는 1인칭 주인공으로서의 ‘나’가 현대의 지식인으로서 느끼는 회의와 무력감, 이를 향한 루선의 비판적 시선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루전의 전통적 가치체계와 그로 인한 억압

1) 전통 억압 기제로서의 유교

상린택은 남편이 죽은 뒤 집을 나와 루전에서 일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상린택의 시어머니가 나타나 무력으로 그를 끌고 간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목도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난 뒤 ‘시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말리지 않는다. 나중에 상린택이 그 시어머니에 의해 산속 마을로 팔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무정함을 탓하지만 그 합법적 권리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시어머니에게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었다. 상린택을 다른 집에 팔지 않으면, 그의 작은 아들의 결혼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다. 더 높은 ‘가격’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꺼리는 산속 마을에 상린택을 팔 수 밖에 없었다. 상린택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불합리하기 그지없지만 그의 이야기가 비극적인 결정적인 이유는 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다는 것에 있다.

상린택은 재혼을 원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유교적 관습인 ‘수절(守節)’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유가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가 기계적으로 사회적 규칙을 따른 것일 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재혼을 원하지 않았다면 혼자 살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오히려 유교 사회의 다른 규범, 곧 삼종지의(三從之義), 그리고 효(孝)로 인해서 상린택의 ‘정절’이 지켜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 후에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뒤에는 자식을 따라야 한다. 첫 번째 결혼에서 자식이 없었으니, 상린택의 이후 삶에 대한 결정권은 그의 시어머니가 가진다. 이것은 변질된 삼종지도인 셈이지만, 시어머니에게 끌려가는 상린택을 보는 루전 사람들 모두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보기만 했던 것처럼,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공인 받은 규범이다. 결국 상린택은 수절하든, 재혼하든, 모두 예교(禮敎)를 어긴 죄인이 되어 버린다.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봉건적 관념이 민간에까지 전파되어 금전과 결합하여 더 심각한 압박으로 변질된 현실에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재산으로 취급되고 교환된다. 상린택은 자신의 노동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는 삶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연말에 거행되는 ‘축복’의 방대한 노동량을 혼자서 책임졌지만, 그는 오히려 그러한 노동에 만족했다. 얼굴에 미소가 생겼고, 피부도 희어지고 살이 붙었다. 만일 상린택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그는 수절(守節)을 ‘선택’했을 것이다. 여성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구시대적이며 현대화를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것이지만, 상린택은 오히려 그로 인해 행복했을 것이다. 유교의 ‘의무’를 유교에 의해 박탈당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상린택은 수절의 합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셈이다.⁴⁾

상린택이 원한 적 없던 재혼은 낙인이 되어 루전 사람들, 특히 루쓰 나리(魯四老爺)의 배척을 받는다. 루쓰 나리는 성리학(性理學)을 공부한 옛 국자감생(國子監生)이다. ‘나리(老爺)’이라 불리고 ‘축복’을 위해 임시 일꾼을 고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부유한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지주라거나 루전의 정신생활을 실질적으로 주재할 정도의 지위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평범한 향신(鄉紳)일 가능성이 높다. 학식은 깊지 않으며 일반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로 저속(庸俗)한 사람이다.⁵⁾

넷째 숙부의 서재로 돌아왔을 때, 지붕은 이미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고, 반사된

4) 마루오 쓰네키(丸尾常喜), 陳月吾·周國良 譯, 「祝福与救濟——在魯迅的“鬼”」, 『魯迅研究月刊』, 04期, 北京魯迅博物館, 1991.

5) 宋劍華, 「反“庸俗”而非反“禮敎”小說「祝福」的再解讀」, 『魯迅研究月刊』, 第11期, 北京魯迅博物館, 2013.

빛이 방을 밝히고 있었다. 벽에 걸린, 탁본한 붉은 색 ‘수(壽)’자가 분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진단(陳搏)선생의 글씨였다. 대련(對聯)의 한 쪽은 이미 떨어져서 대충 말린 채 탁자위에 놓여있었다. 아직 걸려있는 남은 한 쪽에는 ‘사리에 통달하면 마음이 편안하다(事理通達心氣和平)’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또 무료해서 창문 아래에 있는 탁자 위의 책을 뒤적였다. 몇 권 빠진 듯한 「강희자전(康熙字典)」과 「근사록집주(近思錄集注)」한 부, 「사서친(四書襯)」한 부가 있었다.⁶⁾

서재에는 유가의 책이 있지만, 방치된 것으로 보아 루쓰 나리가 그 사상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은 ‘수(壽)’자는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의 상징이며 이는 생명의 가장 물질적이고 원시적인 부분을 가리킨다. ‘사리에 통달하면 마음이 편안하다(事理通達心氣和平)’라는 말은 민간에 널리 퍼진 경구(警句)이며, 사상에 대한 이해와는 무관하다. 만일 루쓰 나리가 서재에 자주 와서 책을 본다면 곧 새해 인데도 대련의 한쪽이 떨어진 채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시류에 영합하는 문화적 소양을 지니고, 체계 없는 이론을 대충 받아들이는 사람이지만 유가 사상을 체계화한 지식인은 아니다.⁷⁾

‘축복’은 혈연조상의 기제사나 생신 제사가 아니라 연말에 ‘기복(祈福)’을 위해 지내는 제사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저우쥘런(周作人)이 고증한 바에 따르면, ‘축복’은 연말에 거행하는 제신(百神)을 위한 의례인 ‘랍(臘)’의 유포이다. “월(越)의 ‘과년(過年)’과 오(吳)의 ‘축복(祝福)’이 결합된 것인데, 시골에서는 원래의 의례적 의미는 사라지고, 기복을 위한 풍습으로 변형되었다. ‘예를 잃고 귀신들에게 기원하는 것(禮失而求諸野)’이라는 말에 들어맞는다.”⁸⁾ 따라서 소설 속 ‘축복’도 유교적 의례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민간신앙에 가깝다.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학자 송지엔화(宋劍華)는 루쉰이 「축복」을 통해 비판하는 것이 유교가 아니라 저속함(庸俗)이라고 해석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저속함, 혹은 세속화된 부분까지 유교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근본은 모두 도교에 있다(中國根柢全在道教)’⁹⁾라는 루쉰의 주장에서 ‘도교’가 지칭하는 대상이 민간의 원시 도교, 즉 민간신앙까지 포함하는 것처럼¹⁰⁾, 유교가 지배

6) 我回到四叔的書房裡時，瓦楞上已經雪白，房裡也映得較光明，極分明的顯出壁上挂著的朱拓的大“壽”字，陳搏老祖寫的；一遍的對聯已經脫落，鬆鬆的卷了放在長桌上，一邊的還在，道是“事理通達心氣和平”。我又無聊賴的到窗下的案頭去一翻，只見一堆似乎未必完全的『康熙字典』，一部『近思錄集注』和一部『四書村』。魯迅，「祝福」，『魯迅全集』第2卷，人民文學出版社，2005，p.6.

7) 宋劍華，「反“庸俗”而非反“禮教”小說「祝福」的再解讀」，『魯迅研究月刊』，第11期，北京魯迅博物館，2013 참조.

8) 越的“祝福”與吳的“過年”都是“臘”的遺風，未始不可。(중략) 與祭百神之說不合，但是鄉下舊俗卻是純粹祀神，這也正可以說“禮失而求諸野”吧。周作人，「祝福」，『周作人散文全集』第12卷，廣西師範大學出版社，2009，p.358.

9) 魯迅，「180820 致許壽裳」，『魯迅全集』第11卷，人民文學出版社，2005，p.365.

계층의 주류 가치인 사회에서 이 주류 가치가 민간의 관습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이 처음의 사상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교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루쉰이 ‘저속함’을 비판하려 했다면, 그것은 당시의 유교 사상에 내재되어 있던 ‘저속함’에 대한 비판일 것이다.

웨이 노파가 처음 상린택을 데리고 루씨 집안에 왔을 때, 루씨 나리는 상린택이 과부라는 이유로 그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인이 상린택의 노동력을 알아보고 남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받아들여기로 했을 때도, 정식 일꾼으로 고용하기로 했을 때도 그는 별말 없이 부인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상린택이 두 번째로 루씨 집안에 왔을 때, 루씨 나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탐탁지 않아 한다. 그러나 자신의 부인이 상린택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동정심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때의 상린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기억력도 떨어졌고, 얼굴에서는 혈색도 미소도 사라졌다. 제사를 준비할 때가 되자 루씨 나리는 상린택이 ‘풍속을 해친’ 사람이라며 제사 준비에 절대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그는 처음에 상린택이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끌려갔는지를 보았고, 그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다. 상린택이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임금도 그 시어머니에게 전달했다. 그는 상린택의 재혼이 상린택 자신의 결정과 무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끌려가서 결혼을 하게 된 것 까지 공동체의 규칙을 어쩔 수 없이 따르기 위해서였음을 인정했으면서도 상린택에게 ‘풍속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다.

집 안 사람들은 모두 ‘축복’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이는 연말 루전의 큰 행사로, 예를 갖추어 신을 맞이하여 이듬해의 복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닭과 거위를 잡고, 돼지고기를 사서 정성스럽게 씻다 보면 찬물에 오래 닿은 여인들의 팔이 새빨갛게 되었다. 은팔찌를 차고 일하는 이도 있었다. 고기가 익으면 무질서하게 젓가락을 꽂는데, 이것을 ‘복례(福禮)’라고 한다. 오경(五更)즈음에 진열하고 초를 켜고 향을 피워 신을 맞이하고 흠향을 청한다. 절은 남자만 할 수 있고, 절이 끝나면 폭죽을 터뜨린다. 매년, 모든 집에서 이렇게 한다. 복례와 폭죽을 살만한 형편만 된다면 올해도 그대로 할 것이다.¹¹⁾

10) 같은 대상을 저우쥘런(周作人)은 ‘샤머니즘(薩滿教)’으로 지칭했다. 中國據說以禮教立國，是崇奉至聖先師的儒教國，然而實際上國民的思想全是薩滿教的(Shamanistic比稱道教的更確)。周作人，「薩滿教的禮教思想」，《周作人散文全集》第4卷，p.295.

11) 家中卻一律忙，都在準備著“祝福”。這是魯鎮年終的大典，致敬盡禮，迎接福神，拜求來年一年中的好運氣的。殺雞，宰鵝，買豬肉，用心細細的洗，女人的臂膊都在水裡浸得通紅，有的還帶著絞絲銀鐲子。煮熟之後，橫七豎八的插些筷子在這類東西上，可就稱為“福禮”了，五更天陳列起來，並且點上香燭，恭請福神們來享用；拜的卻只限於男人，拜完自然仍然是放爆竹。年年如此，家家如此，—只要買得起福禮和爆竹之類的，今年自然也如此。”魯迅，「祝福」，《魯迅全集》第2卷，人民文學出版社，200

축복은 신을 맞이하고 복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제물 준비는 여성이 맡는다. 그들은 한겨울에 닭과 거위를 잡고, 찬물로 고기를 씻느라 손이 벌게진다. 하지만 절은 남자만 할 수 있다. 여성에게는 신을 맞이할 ‘권리’는 없고, 제물을 준비할 ‘의무’만 있다.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상린택은 간절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했다. 그에게 이는 마땅히 해야 하는 노동이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따라서 제물 준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에게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과 다름없다. 유가 사상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상린택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체계에 순종하며 수절하려고 했다. 그러나 바로 그 가치체계의 모순으로 그는 원하던 공동체에서 쫓겨났다. 그는 또한 전통 사회에서 규정된 ‘여성’으로서의 의무를 지켜 제물 준비에 참여하고자 했지만, 그 기회마저 빼앗겼다. 그는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반복해서 배척당했다.

2) 위로의 기능을 상실한 민간신앙

제물 준비로부터 배제되어 많은 개인 시간을 갖게 된 상린택은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아들을 잃게 된 비극적인 과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내가 어리석었지, 정말’로 시작하여 자신은 봄에도 짐승이 마을에 내려올지 몰랐다는 것, 아이에게 묻지방에서 콩을 까라고 시킨 것, 아이가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한 것, 그리고 아이가 사라진 걸 알았을 때의 조급한 마음, 내장이 늑대에게 먹혀 속이 텅 비어버린 아이의 모습 등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린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이야기에 집중했다. 특히 마을의 여성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어떤 여성은 그의 비극을 듣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다. 상린택이 목이 메 말을 잇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여성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만족한 듯 돌아가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일종의 참회(懺悔)이다. 상린택은 ‘내가 정말 어리석었지’로 시작하지만 이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한다. 그가 반복해서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이해와 용서를 얻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¹²⁾ 그러나 사람들에게 상린택의 이야기는 연극 같은 오락거리일 뿐이라 몇 번 들은 뒤에는 곧 지겨워한다. 나중에는 상린택이 “내가

5, pp.5-6.

12) 마루오 쓰네키(丸尾常喜), 秦弓 역, 『人與鬼의糾葛——魯迅小說論析』, 人民文學出版社, 2010, p. 195.

어리석었지, 정말”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곧장 그의 말을 끊고서는 “그래요, 아주머니는 한겨울 산속에 먹을 것이 없으니 그때만 짐승이 마을로 내려오는 줄 알았죠”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뜬다. 상린댁은 끝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모두들 축복 제사 준비로 바쁠 때, 준비에 참여할 수 없는 상린댁은 과거의 비극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때 류마(柳媽)가 상린댁에게 저승에서의 재판에 대해 이야기한다.

“상린댁, 자네 생각이 정말 짧았어.” 류마는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건넸다. “더 버티거나 아니면 아예 세게 부딪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자네는 두 번째 남편과 이년도 채 못 살고 큰 죄명을 얻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나중에 저승에 가면 두 남편이 자네를 놓고 싸울 텐데, 염라대왕이 자네를 누구에게 주겠나? 톱으로 잘라 반쪽씩 나눠 갖게 하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정말이지”¹³⁾

류마는 곧 ‘해결’ 방법을 알려준다. 절에 기부를 해서 문턱을 하나 만들면, 그 문턱이 상린댁의 분신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것이니 결국 이번 생의 죄에 대한 벌을 받은 셈 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류마는 이를 통해서 이익을 편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린댁을 ‘위해서’ 상린댁이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상린댁은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튿날 토지묘(土地廟)에 가서 돈을 기부한다. 토지묘 측에서는 처음에는 상린댁의 기부를 거부했다. 상린댁이 간절하게, 눈물까지 흘리며 부탁하자 어쩔 수 없이 허락한다. 그런데 문턱 하나에 십이관(貫)이라는 가격이 놀랍다. 처음에 상린이 루씨 집안에 왔을 때 매월 임금이 오백문(文)이었고, 시어머니에게 끌려갈 때 계산된 총임금이 천칠백 오십문 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토지묘에서 요구하는 십이관은 신앙의 표시라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다. 이 정도 금액은 상린댁의 간절함을 이용한 비열한 장사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상린댁은 전 재산을 쓰고 나서야 신앙이 주는 약간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루원은 민간신앙의 긍정적인 기능을 인정했다. 예를 들어, 저승사자인 무상(無常)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은 현세에서 신분과 재산 등에 따라 겪는 불공정함이 원인이라고 보았다. 무상을 따라 염라대왕 앞까지 가면, 그때는 권력과 돈의 영향을 받는 현세의 재판과는 달리 공평무사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¹⁴⁾ 저승의 공평무사한 재

13) “祥林嫂，你實在不合算。”柳媽詭秘的說。“再一強，或者索性撞一個死，就好了。現在呢，你和你的第二個男人過活不到兩年，倒落了一件大罪名。你想，你將來到陰司去，那兩個死鬼的男人還要爭，你給了誰好呢？閻羅大王只好把你鋸開來，分給他們。我想，這真是……。”魯迅，「祝福」，《魯迅全集》第2卷，人民文學出版社，2005，p.19.

판이라는 존재가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저승의 ‘공정한’ 재판이 현세의 가치의 영향을 받아 현세와 같은 도덕 기준을 갖게 되고, 현실 유교의 여러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저승의 재판에도 마찬가지로 생겨났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저승의 재판이 오히려 현실의 유교적 가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¹⁵⁾

3. 현대 지식인으로서의 ‘나’의 외면

1) 질문에 대한 응답의 거절

「축복」은 ‘나’가 처음 상린택을 만나고 5년 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첫 만남에 비해 상린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있다. 머리가 완전히 세었고, 안색이 나빠진 데다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생기(生氣)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상린택은 마흔 전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색이 나빠지고 슬픔조차 완전히 사라져서 감정이 없는 나무 같은 모습의 거지가 되었다.

나는 멈춰 서서, 그에게 돈을 줄 준비를 했다.

“돌아왔어요?” 그가 이렇게 물었다.

“네”

“잘됐네. 배운 분이고, 바깥에서 왔으니 아는 것도 많겠네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생기 없던 그의 눈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이런 말을 꺼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아해하며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두 걸음 다가와서, 목소리를 낮추고, 중요한 비밀인 듯 작은 소리로 말했다. “사람이 죽으면, 정말 영혼이 있나요?”¹⁶⁾

영혼의 유무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 없던 ‘나’는 예고에 없던 시험을

14) 想到生的樂趣，生固然可以留戀；但想到生的苦趣，無常也不一定是惡客。無論貴賤，無論貧富，其時都是“一雙空手見閻王”，有冤的得伸，有罪的就得罰。魯迅，「無常」，《魯迅全集》第2卷，人民文學出版社，2005，p.279.

15) 程凱，「“招魂”、“鬼氣”與復仇——論魯迅的鬼神世界」，第6期，《魯迅研究月刊》，2004.

16) 我就站住，預備她來討錢。“你回來了？”她先這樣問。“是的。”“這正好。你是識字的，又是出門人，見識得多。我正要問你一件事——”她那沒有精采的眼睛忽然發光了。我萬料不到她卻說出這樣的話來，詫異的站著。“就是——”她走近兩步，放低了聲音，極秘密似的切切的說，“一個人死了之後，究竟有沒有魂靈的？”魯迅，「祝福」，《魯迅全集》第2卷，人民文學出版社，2005，pp.6-7.

치르게 된 학생보다 더 당황한다. ‘나’는 상린택에게 ‘있다’라고 대답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는 일이므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아마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나는 떠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럼, 지옥도 있겠네요?”

“아! 지옥이요?” 나는 놀라서 우물쭈물하며, “지옥이요? 이치로 따지면, 당연히 있어 야하는데—하지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런 일을 누가 그렇게 따지나요…”

“그러면, 죽은 가족들도 다 다시 만날 수 있겠네요?”

“아, 만날 수 있을까…?” 이 때쯤 되자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다. 어떤 태도나 계획도 그의 단 세 마디 질문을 버티지 못했다. 나는 이내 위축되어 앞에서 했던 말을 뒤집고 싶어졌다. “그, … 정말로, 확실히는… 사실 정말 영혼이 있는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¹⁷⁾

상린택은 일부러 ‘바깥세상에서 온 사람(出門人)’을 찾아가 물었다. 이는 상린택이 자신이 몸담고 있던 가치체계에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른 가치 체계에서 답을 탐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⁸⁾ 만일 단순히 ‘툭으로 잘릴’ 것을 두려워한 것이라면, 직접 그런 일이 저승에서 있는지를 물었을 것이며, 영혼이나 저승의 유무처럼 더 근원적인 문제를 묻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린택의 공포가 ‘의심’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영혼이 있다면, 그는 죽은 가족들을 모두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몸은 둘로 나뉘어 절반은 첫 번째 남편과, 남은 절반은 두 번째 남편 그리고 아들 아마오(阿毛)와 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영혼이 없다면, 그는 죽은 뒤에도 가족들, 특히 아들을 만날 수 없다. 그에게는 두 결과 모두 불행이다. 상린택은 완전히 절망하기 전에 ‘나’, 즉 그가 접해본 적 없는 전혀 다른 세계의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물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다. ‘나’는 영혼이나 저승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기 때문이며, 바꿔 말하면 살면서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린택에게는 삶 전체가 걸린 문제이지만, ‘나’에게는 ‘불시의 시험’ 같은, 두렵고 초조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사소한 일이다. ‘나’는 겪었던 일 중 가장 두렵고 초조했던 일

17) “也許有罷，—我想。”我於是吞吞吐吐的說，“那麼，也就有地獄了？”“阿！地獄？”我很吃驚，只得支梧著，“地獄？—論理，就該也有。—然而也未必，……誰來管這等事……。”“那麼，死掉的一家的人，都能見面的？”“唉唉，見面不見面呢？……”這時我已知道自己也還是完全一個愚人，什麼躊躇，什麼計劃，都擋不住三句問。我即刻胆怯起來了，便想全翻過先前的話來，“那是，……實在，我說不清……。其實，究竟有沒有魂靈，我也說不清。”魯迅，「祝福」，《魯迅全集》第2卷，人民文學出版社，2005，p.7.

18) 程凱，「“招魂”、“鬼氣”與復仇——論魯迅的鬼神世界」，第6期，《魯迅研究月刊》，2004.

이 고작 ‘불시의 시험’인 사람이다.

문제는 ‘나’의 태도가 ‘과학적’이라는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현대 과학은 아직까지 영혼의 존재나 부재를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확한 답은 ‘모른다’이다. 그러나 상린택이 원하는 것은 ‘증명’이 아니다. 그가 필요로 한 것은 삶의 ‘염원’, 영혼의 ‘위로’였다. 그러나 ‘나’가 가진 ‘새로운 가치’는 공허하며 심지어 모호하다. ‘나’는 구시대의 가치체계에서 벗어났지만 새로운 가치체계를 완전히 체화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새로운 가치체계는 영혼에 관한 사유에서는 무능할 정도이고,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다.¹⁹⁾ 따라서 새로운 가치체계를 완전히 체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고자 하는 상린택의 희망을 방해할 것이며, 대신할 만한 다른 희망도 주지 않을 것이다.

2) 선택으로서의 계몽과의 단절

현대 지식인으로서의 ‘나’는 스스로에게도 확신을 갖지 못한다. 시대는 변했고, 과거처럼 공부가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풍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게다가 ‘나’가 가진 것은 ‘공허한 새로운 가치’²⁰⁾ 뿐이다. ‘나’가 확신을 갖고 실천하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說不清)’이고 이런 말을 함으로써 책임을 미루는 것뿐이다. ‘나’는 타인을 이해하거나 타인에게 공감하려 하지 않는다. ‘나’와 루쓰 나리의 단절, ‘나’와 상린택의 단절은 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대 지식인은 전통적 가치를 숭상하는 이전 세대 뿐 아니라 민중과도 단절된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 지식인은 과거에 합격하면 관료가 되어 사회를 통치할 권리를 가졌다. 백성들은 관료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었다. 몰락한 전통 지식인을 그린 소설 「공을기(孔乙己)」의 주인공 공을기는 전통 지식인이지만 여러 차례 과거에 낙방하여 이러한 지식인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의 경우,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 사이의 간극이 크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이때 ‘계몽’을 수행하려 한다. 공을기가 가진 지식은 과거 시험 용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다. 그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지식을 억지로 전수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와 사람들 사이의 간극이 더욱 커진다.

그러나 막 근대를 경험하기 시작한 지식인은 다른 이유로 민중으로부터의 단절을

19) 程凱, 「“招魂”、“鬼氣”與復仇——論魯迅的鬼神世界」, 第6期, 『魯迅研究月刊』, 2004.

20) 程凱, 「“招魂”、“鬼氣”與復仇——論魯迅的鬼神世界」, 第6期, 『魯迅研究月刊』, 2004.

경험한다. 「고향(故郷)」의 ‘나’는 현대적 교육을 받은 지식인으로서, 아직 과거의 봉건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문투(閩土)와 단절을 느낀다. 문투는 계급의 상존을 체현하며 ‘나’를 ‘어르신’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아들에게 절(磕頭)을 시켜 ‘나’와의 계급적 경계를 공고히 한다. 또한 향로와 촛대를 가져감으로써 아직도 귀신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어린 시절 서로 말을 놓고 지내던 문투가 과거의 봉건적 계급의식을 견지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절망한다.

「축복」의 ‘나’는 공을기와도, 「고향」의 ‘나’와도 다르다. ‘나’는 민중의 생활을 바로 옆에서 관찰하고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안다. 그러나 ‘나’는 자신에게 계몽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나’가 이 계몽의 책임을 거부함으로써 ‘나’와 상린택은 완전히 단절된다. 「고향」의 ‘나’는 절망하면서도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걸지만, 「축복」의 ‘나’는 상린택을 두고 도망침으로써 회피한다. ‘나’는 상린택의 정서가 불안정하며, ‘나’의 대답으로 인해 그가 위험해 질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지식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변명한다. 이는 상린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다. ‘나’는 만일 상린택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답변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긴장하지만, 이내 안심한다. ‘확실히 모르겠다’고 한 마지막 말이 대답의 전체 방향을 뒤집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나’의 관심은 상린택의 안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안정에 있다. 상린택의 안위에 문제가 생긴다 해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순간, ‘나’의 불안은 상당 부분 사라진다.

상린택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나’에게 보내는, 도와달라는 신호였으나 ‘나’는 그것을 철저히 무시했다. ‘나’는 고향인 루전에 돌아와서도 이방인과 같은 위치였지만, 상린택의 죽음 앞에서는 루전 사람들과 같은 편에 서야 한다. 즉, ‘나’ 역시 상린택의 비극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다. 상린택의 죽음을 전해 듣고 ‘나’는 마음이 편해진다. ‘나’를 포함하여, 루전에 상린택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없다. 때때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나’ 역시 잠깐 상린택을 떠올릴 뿐이다.

겨울은 낮이 본래 짧은 데다 눈까지 내리니 어둠이 일찌감치 온 마을을 뒤덮었다. 사람들은 모두 등불 아래서 바쁘게, 창밖은 고요하다. 소복하게 쌓인 눈 위로 눈송이가 살포시 내려와 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적막감이 더해졌다. 나는 혼자 노란빛을 내는 유채기름 등잔 아래 앉아 생각했다. 의지할 데 없던 상린택, 싫증나서 버려져 먼지 쌓인 장난감 같던 그가 전에는 그래도 먼지 속에서 사람의 형체를 보여서 사는 게 즐거운 이들이 상린택의 존재를 확인하고 놀라기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저승사자

가 데려가서 먼지조차 남지 않게 되었구나. 영혼의 유무를, 나는 모른다. 그러나 현재에서 무의미한 삶을 지속하던 사람이 죽는 것은,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보지 않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서 모두 좋은 일이다. 나는 창밖에서 눈송이가 떨어지는 소리를 조용히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마음이 오히려 점점 후련해졌다.²¹⁾

비록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서(為人為己)’라고 하지만, 상린택의 죽음이 그 자신을 위해서인지는 알 방법이 없다. 버려져 먼지 쌓인 장난감 같았다는 것은 ‘나’의 회상속 이미지일 뿐이다. 상린택이 영혼과 지옥에 관해 물었을 때, ‘나’는 그 까닭을 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린택의 죽음이 타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타인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뿐이다. ‘나’는 마음이 후련해진 뒤에, 눈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상린택이 처음 루전에 왔던 날부터의 모습을 생각한다. 그리고 아마오가 죽고 루전에 돌아온 상린택이 정신을 아예 놓아버린 것처럼 변한 것이 상린택에 대한 ‘나’의 회상의 끝이다.

가까이에서 들리는 아주 시끄러운 폭죽 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리니, 콩알만 한 크기의 노란 등불 빛이 보였다. 이어서 타닥타닥하는 폭죽 소리가 또 들리니, 넷째 숙부의 ‘축복’ 제의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것을 듣고 곧 오경(五更)이라는 것을 알았다. 몽롱한 가운데 멀리서 폭죽 소리가 어렴풋하게, 계속 들렸다. 온 하늘에 울리는 소리와 합쳐진 짙은 구름이 흩날리는 눈송이와 함께 온 마을을 끌어안았다. 나는 이 소란스러운 포옹 속에서 나른해지면서 편안해졌다. 낮부터 이어진 의혹과 근심이 이 축복의 공기에 의해 완전히 사라졌고, 그저 천지신명이 제물을 흠향하고 취해 비틀거리며 루전 사람들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려고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²²⁾

루전은 ‘나’의 고향이지만, ‘나’의 집은 없다. 본가의 넷째 숙부(루쓰 나리)가 있을

21) 冬季日短，又是雪天，夜色早已籠罩了全市鎮。人們都在燈下匆忙，但窗外很寂靜。雪花落在積得厚厚的雪褥上面，聽去似乎瑟瑟有聲，使人更加感得沉寂，我獨坐在發出黃光的菜油燈下，想，這百無聊賴的祥林嫂，被人們棄在塵芥堆中的，看得厭倦了的陳舊的玩物，先前還將形骸露在塵芥裡，從活得有趣的人們看來，恐怕要怪訝她何以還要存在，現在總算被無常打掃得乾乾淨淨了。魂靈的有無，我不知道；然而在現世，則無聊生者不生，即使厭見者不見，為人為己，也還都不錯。我靜聽著窗外似乎瑟瑟作響的雪花聲，一面想，反而漸漸的舒暢起來。魯迅，「祝福」，《魯迅全集》第2卷，人民文學出版社，2005，p.10.

22) 我給那些因為在近旁而極響的爆竹聲驚醒，看見豆一般大的黃色的燈火光，接著又聽得畢畢剝剝的鞭炮，是四叔家正在“祝福”了；知道已是五更將近時候。我在朦朧中，又隱約聽到遠處的爆竹聲連綿不斷，似乎合成一天音響的濃雲，夾着團團飛舞的雪花，擁抱了全市鎮。我在這繁響的擁抱中，也懶散而且舒適，從白天以至初夜的疑慮，全給祝福的空氣一掃而空了，只覺得天地聖眾歆享了牲醴和香煙，都醉醺醺的在空中蹣跚，預備給魯鎮的人們以無限的幸福。魯迅，「祝福」，《魯迅全集》第2卷，人民文學出版社，2005，p.21.

뿐이다. ‘나’와 넷째 숙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집에서 ‘나’는 언제나 혼자다. ‘나’는 루전에 별다른 애착이 없으며,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일단 떠나는 것부터 고려한다. 그러한 ‘나’가 루전의 축복 제사의 폭죽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함을 느낀 것은 ‘나’가 제의를 통해 일말의 죄책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지식인으로서의 ‘나’가 그만큼 연약하고 무력하며,²³⁾ 한편으로는 이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받은 현대적 교육의 가치를 견지하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영혼과 지옥의 유무조차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도망쳤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제의를 통해 위안을 얻는다. 천지신명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만큼은, ‘나’는 스스로 비판했던 루쓰 나리나 류마와 다르지 않다.

5. 나오며

「축복」의 이야기는 화자인 ‘나’가 고향인 루전에 잠깐 돌아온 것으로 시작해 ‘축복’ 제의를 통해 위안을 얻는 것으로 끝난다. 상린택의 불행은 ‘나’가 상린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의를 기다리는 그 잠깐의 회상 속에서 독자에게 전해진다. 상린택의 불행의 시작은 재혼한 남편의 죽음이었다. 그는 열병의 끄트머리에 찬밥을 먹고 병이 재발하여 죽었다. 산속의 외딴 마을에 살았으니 의사를 부르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죽음의 원인이 다른 데 있을지라도 알아낼 방도는 없었을 것이다. 상린택이 아들 아마오와 계속 살았던 그 곳은 말 그대로 ‘대자연’의 한가운데였으며, 어떠한 안전망도 없는 곳이었다. 결국 아마오는 늑대에게 끌려가 잡아먹히고 그것을 목격한 상린택에게 트라우마를 남긴다. 이것은 상린택의 운명도, 잘못도 아니다. 정상적인 사회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불행일 뿐이다. 상린택 자신이 일을 하느라 아들에게서 눈을 떼는 동안 늑대에게 물려갔으므로, 상린택은 아들을 잃은 슬픔 뿐 아니라 자신의 불찰로 아들을 죽게했다는 죄책감까지 짊어지고 루전에 돌아온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마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 자신의 잘못을 반복해서 말하며 참회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길 뿐이고,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연속극을 보며 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나마 상린택에 대한 이 정도의 연민도 오래가지 못하고 곧 사라져버린다. 상린택은 자신이 수절하지 못해서, 저승에 가면 두 명의 남편에게 각각 절반의 몸이 주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23) 易瑛, 『巫風浸潤下的詩意想象——巫文化與中國現當代小說』, 湖南師範大學出版社, 2013, p.42. 참조.

들은 뒤, 전 재산을 사원에 기부하고 잠깐의 평화를 얻는다. 그러나 ‘축복’ 준비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뒤 더욱 절망하고 삶의 의욕을 모두 잃어버린다. 만일 제의가 전통사회를 유지하는 중요 기제라면, 그 중 여성의 역할 역시 전통 사회에서 규정한 중요한 의무일 것이다. 신을 맞는 행위는 남성만 하고 고된 준비는 여성만 하는 것은 분명 봉건적이고 불합리한 전통이지만, 상린택은 그 ‘불합리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의 준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은 곧, 사회에서 하나의 여성, 나아가서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가지는 의무와 권리를 모두 박탈당한 것이다. 즉, 상린택은 민간신앙을 통해서도, 유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나’가 상린택의 불행과 주변 사람들을 자세하게 회상하면서도 자신의 존재는 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넷째 숙부의 완고함과 비정함, 류마의 악의 없는 가해, 루전 사람들의 조소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나’는 무해한 관찰자인 듯하다. 그러나 ‘나’가 상린택을 떠올리게 된 계기(혹은 사건)를 돌이켜 보면, ‘나’의 이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화자’ 역할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나’는 상린택의 질문에 얼버무리며 대답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한 뒤, 만일 상린택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의 대답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한다. 그러나 곧 상린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나’는 상린택의 불행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확신을 한 후에야 눈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편해지고, 상린택에 대한 회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나’의 기억 속에서 ‘나’는 넷째 숙부와 류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고 상린택을 동정할 만큼 정의로운 ‘관찰자’가 된다.

그렇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의 ‘나’는 더는 스스로의 기억 속의 무해한 관찰자일 수 없다. 상린택이 ‘나’에게 영혼과 지옥의 유무에 대해 물어보았던 그 순간부터, ‘나’는 「축복」의 관찰자적 화자가 아닌,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주인공이 된다. 상린택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던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의 원인을 ‘가난해서 죽은 것’으로 단정함으로써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일로 만든다. 상린택을 외면함으로써 그의 죽음에 일조한 ‘나’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상린택의 죽음이 상린택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매듭지어버린다.

1924년 『동방잡지(東方雜誌)』에 발표된 「축복」은 1926년 출판된 단편집 『방황(彷徨)』의 첫 번째 수록작이다. 1925년 4월 연인 쉬광평(許廣平)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전에는 구당(舊黨)만을 공격했으나, 지금은 청년도 공격해야 한다.”²⁴⁾라고 한 것에서 보여지 듯, 당시 루쉰에게는 중국 전통 사회와 청년, 즉 전통 사회를 비판하는 새로

24) 先前我只攻擊舊黨，現在我還要攻擊青年. 「250408 致許廣平」, 『魯迅全集』第11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p.476.

운 세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공존했다. 또한 「축복」에 이어지는 「고독자(孤獨者)」, 「술집에서(在酒樓上)」, 「장명등(長明燈)」, 「상서(傷逝)」 등 『방황』에 수록된 다른 작품 역시 무력한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축복」 역시 이러한 맥락 안에서 독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신’을 두고 마을 사람들과 갈등하는 지식인이 등장하는 「장명등」은 「축복」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단행본>

- 魯迅, 『魯迅全集』, 人民文學出版社, 2005.
마루오 쓰네키(丸尾常喜), 秦弓 譯, 『人與鬼的糾葛——魯迅小說論析』, 人民文學出版社, 2010.
烏丙安, 『中國民間信仰』, 長春出版社, 2014.
易 瑛, 『巫風浸潤下的詩意想象——巫文化與中國現當代小說』, 湖南師範大學出版社, 2013.
周作人, 『周作人散文全集』,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논문>

- 陳建飛·葉志良, 「人肉筵宴上的貢品——「祝福」悲劇的文化涵義」, 『浙江師範大學學報』, 第2期, 浙江師範大學, 2005.
程 凱, 「“招魂”、“鬼氣”與復仇——論魯迅的鬼神世界」, 『魯迅研究月刊』, 第6期, 北京魯迅博物館, 2004.
高遠東, 「祝福儒道釋“吃人”的寓言」, 『魯迅研究月刊』, 第2期, 北京魯迅博物館, 1989.
李德堯, 「論「祝福」對儒教的批判」, 『漢江師範學院學報』, 第00期, 漢江師範學院, 1985.
마루오 쓰네키(丸尾常喜), 陳月吾·周國良 譯, 「祝福與救濟——在魯迅的“鬼”」, 『魯迅研究月刊』, 第4期, 北京魯迅博物館, 1991.
宋劍華, 「反“庸俗”而非反“禮教”小說「祝福」的再解讀」, 『魯迅研究月刊』, 第11期, 北京魯迅博物館, 2013.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魯迅, 祝福, 祥林嫂, 民間信仰, 禮教				
Key Words	영문	Lu Hsun, Bless, madam Xianglin, Folk belief, Confucianism				
<div>Reperusing Lu Hsun's 「<i>The New Year's Sacrifice</i>(祝福)」 : Focused on the role of "I" as the first-person protagonist</div> <div>Kim, Yeon-Su</div> <div>There were two traditional sets of values, shown in Lu Hsun(魯迅)'s novel 「<i>The New Year's Sacrifice</i>(祝福)」, published in 1924. Those are Confucianism, represented by master Lusi(魯四老爺), and folk beliefs by madam Liu(柳媽). And "I", who represents the modern intellectuals, critically depict this traditional values. Madam Xianglin(祥林嫂) intended to live alone, when she came to Lusi's house for work. But, forced by her mother-in-law, who wants the bride price, she was remarried and deprived of her right to be faithful. It became her stigma and she was blamed to be depraved person. It made her excluded from both Confucianism and folk belief. After completely being denied her existence in traditional value system, Despaired madam Xianglin asked the'I', who learned the new knowledge from outside world, about the existence of soul and hell. Since then, "I" was not the observer of 「<i>The New Year's Sacrifice</i>」, but the protagonist. "I" tried to become the bystander who drastically ignore madam Xianglin, who needed the comfort for her soul. Though the query of madam Xianglin was as a signal of demanding helps, the only attention of "I" was his safe and comfort. Further, without saying clearly about the existence of the soul, he himself get his comfort by feeling the existence of heaven and earth during the ritual of "Bless". The "I", no more or less than master Lusi or Liuma who he blamed, was one of perpetrators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tragic of madam Xianglin.</div>						
저 자	김연수 / 金娟秀 / Kim, Yeon-Su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1.08.20.	심 사 일	2021.08.26.	게재확정일	2021.09.16.